

전남산 초소형 전기차·오토바이, 동남아·중동 시장 공략

e-모빌리티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 개발·지역 기업 현지 진출 지원 현지에 지원센터 구축...올 상반기 베트남서 '모빌리티 데이' 개최

전남도가 도내에서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 등 이(e)-모빌리티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시장에 내 놓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편 현지에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신규사업으로 이-모빌리티 핵심부품 국산화, 수요연계형 부품기술개발에 나서는 한편 도내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구축(사업비 90억원), 동남아 시장에 맞춘 우측 핸들(RHD) 차량과 교환형 배터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초소형 전기차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150억원) 등에 나선다.

또 해외바이어 상담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동남아시장 개척을 위한 '전남 모빌리티 데이'도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개최한다. 올해 상반기 첫

'전남 모빌리티 데이'는 에이치비, 대풍, 세보 등 전남 우수 기업이 참여한다. 필리핀 대기업 LCS 그룹, 일로코스 등 등을 방문해 수출상담회와 연계협력 강화 등 글로벌 이-모빌리티 중심지로의 도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들 역시 해외시장 진출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대풍, 에이치비가 필리핀 앵커 기업과 필리핀 진출을 위한 조립공장 설립·생산·판매를 위한 이-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구축 협약을 했다. 세보모빌리티도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업들의 노력이 발맞춰 완제품 수출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남에서 주요 부품

을 생산하고 도내 기업이 설립한 동남아 조립공장 에서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전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175억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영광 대마산업단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장·성형·용접 등 생산장비를 갖춘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규제·실증·인증·허가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이-모빌리티 글로벌 핵심특구를 유치해 도내 기업의 해외 맞춤형 인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라이브 테스트베드와 글로벌 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 세계적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이-모빌리티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국산 이-모빌리티 제품이 해외에서도 기술과 가격 등 어느 분야에서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품 개발뿐 아니라 수출 및 인증지원 등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이-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시작으로 실의성능시험장, 미래차 전자파 인증센터,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등 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해 제품 개발부터 인증·제작에 이르기까지 전주 기 지원체계를 갖추며 국내 최고의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써 입지를 다지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설 장보기, 게임만큼 재미있어요” 지난 31일 청사 1층 시민홀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장에서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원생들이 장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양동시장·1913송정역시장·남광주시장 등 11개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과일, 한과, 떡 등의 제수용품과 간식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김진표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4대 특구 연계 지방시대 대비해야”

전남연구원, 정책연구 장간호 발간...지자체 역량 강화 등 제안

전남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에너지전자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면서 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도심융합 등 4대 특구와 연계해 앞으로의 지방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와의 협력을 통한 인적 자본 및 지역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남해안권 중심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전남연구원은 지난 30일 '지방시대 전남의 대응 방향'을 특집주제로 '전남정책연구' 장간호를 발간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지역특화형 산업의 집중 육성, 4대 특구와 연계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전남이 주도하는 희망찬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주도의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가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연구원은 전남이 향후 디지털 전환 중심의 산업육성정책 추진, 인재·인프라 중심의 혁신거점 기능 강화 등 선

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 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김영수-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전남은 이미 기반을 확보한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하는 에너지전자 산업을 병행 육성하고, 중증거점도시인 광주와 협력해 인적자본 및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지역 간 협력으로 예산을 투입해 규모화를 꾀하면서, 하드웨어 측면의 기반 확충을 추진해 디지털전환에 초점을 맞춘 산업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남연구원 신동훈-최우람 박사는 전남 특성을 반영한 4대 특구별 추진과제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데이터센터 건립 등 분권형 특구 구성·운영, 한국에너지공과대와 순천대(글로벌대학30) 중심의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기술(AI 등)을 결합한 신성장동력 콘텐츠산업 육성, 광주의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한 혁신사업 발굴 및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CCTV관제센터 영상 사각지대 해소

101억 투입 시설 개선...전송망 이원화·속도 5배 상향 등 개선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가 첨단기술을 접목한 현대식 내부환경을 갖추고, 새롭게 운영한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CCTV통합관제센터의 전송망 구성과 내부 환경을 현대식으로 교체했다. 2013년 문을 연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회선사업자로 선정된 LGU플러스 투자

로 추진됐으며, 시스템 교체와 보강(26억원), 관제실 환경공사(25억원), 현장설비 교체(32억원), 영상자료 실증시스템 구축(18억원) 등에 101억원이 투입됐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전송망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전송망을 이원화하고 전송장비 교체, 전송속도를 5배로 상향했으며, 관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제실 리모델링, 시스템실 통합이전, 노후시스템 교체, 영상열람실 확장 등을 진행했다.

영상체험관을 1층 별도 공간으로 마련하고 가상 현실(VR)과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추가했으며,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영상자료 실증 연구실도 구축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반출시스템과 접속 기록시스템 등은 이미 가동 중이며, 선명한 영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심에 설치된 노후 CCTV 421대는 교체하고 498대는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새 단장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 예방 기능이 강화돼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안심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전략작물 직불금 682억 지원

오늘부터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전남도는 2월 1일부터 682억원 규모의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 기한은 동계작물은 3월 31일, 하계작물은 5월 31일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윤률 제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등을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에보리 등이다. 하계작물은 식용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사료작물을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상

0.1ha 이상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에 출산했던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하계작물 지원을 확대해 식용옥수수 신규 추가(ha당 100만원), 기존 논농은(ha당 100만원) 녹두, 팥 등을 포함한 두류(m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100만원 인상했다.

겨울에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에 식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ha당 100만원, 두류·가루쌀은 ha당 2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ha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원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 장관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원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